광주시의원 3명, 전남도의원 4명 는다

구례·곡성·함평·진도는 1명 줄어…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국회 정개특위 잠정 합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의원이 3명, 전남도의원이 4명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정당은 군의원을 제외한 시 단위 이상의 지방의원의 경우 최소 1석의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내도록 했다. 대신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28일 최근 간사단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조정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각 시·도 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 4대1)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개특위는 논의를 벌여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안으로 채택했다.

이 안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광산구을에서 1명이 늘게 된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날 간사단 추가 협의를 통해 광역 시·도 지역구의원의 하한선을 현행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전·울산시의회의 의원정수는 기존 19인에서 22명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광산구을에 이어 북구갑, 남구에서 각각 한 석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주시의원 정수 조정은 의원 수가 적어 대부분 의원들이 상임위에 중복 참여하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도의회는 4명 증가한다. 여수 2명(4→6), 순천 3명(2→5), 목포 2명(2→4), 광양 1명(2→3)이 각각 늘어나는 대신 구례·곡성·함평·진도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비례대표 확대 무산·여성 참여 확대=정개특위는 또 군의원을 제외한 광역시·도의원, 구의원, 기초시의원 등 시 단위 이상의 지방의원 후보와 관련, 각 정당이 최소 1석의 지역구에 여성후보로 내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데 따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위로 돌아갔으며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초시와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기준일을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바꿔 예비후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 반면 너무 길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비례대표 승계 금지 기간은 기존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여성 지역구 후보 공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했던 공천 지원금을 장애인 후보 공천의 경우까지 확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보안군인들이 반정부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유혈 사태…10명 사망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부정선거 시비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이후 6개월만인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란 각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 6월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27일(현지시간)은 존경받는 반체제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최고 성직자였던 그랜드 아야톨라 호세인 알리 몬타제리가 타계한지 7일째되는 되는 날이자 시아파 성일인 '아슈라'가 맞물려 시위가 더욱 격렬했다.

◇6개월만의 최악 유혈사태=이란 내 개혁 성향 웹사이트들에 따르면 27일 수도 테헤란에서는 시위 진압에 나섰던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최소 5명이 숨졌다. 또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에서 4명, 남부 쉬라즈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이란 주요 지역에서 모두 10명의 시위대가 숨졌으며 수백여명이 다치고 300여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 발포 사실 부인=이란 정부는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 발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시위대 5명이 숨졌으나 이들이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살해됐다고 28일 밝혔다.

아마드레자 라단 경찰부국장은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숨진 시위자 중 1명은 다리에서 떨어졌고 2명은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나머지 1명은 총격으로 숨졌으나 경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터키에도 원전 수출 추진

정부, 200억달러 규모

정부는 UAE(아랍에미리트)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원전을 수출한데 이어 같은 중동국가인 터키에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UAE 원전수출로 중동지역의 대규모 신규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UAE 다음으로 터키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원전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키를 상대로 수주를 추진 중인 원전 규모는 흑해변에 건설될 4기이며 수주규모는 최대 200억 달러(1기당 50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 원전 수주, 고위급 경쟁 승리"

외신들 일제히 보도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총 400억달러(한화 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각국 외신은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8일 '한국이 중동에 원전을 짓는다'는 제목의 파리발 보도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제너럴일렉트릭-히타치 팀과 프랑스의 전력공사-아레바 컨소시엄을 격퇴했다"고 전했다.

NYT는 특히 올해 에너지 부문에서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이번 계약 입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이 로비에 뛰어들어 경쟁이 뜨거웠다면서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주도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 컨소시엄이 프랑스와 미국, 일본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UAE 원전 건설 계약을 따냈다며 이는 최대 규모의 입찰 가운데 하나였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이 UAE와 4기의 원전 건설 계약에 서명하고 양국이 에너지 협력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윤봉근 전 의장 "광산구청장 출마"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은 28일 "광산구를 교육·문화·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며 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장은 ▲교육청과 연계한 민주·평화·인권·녹색 교육환경 조성 ▲초·중·고 무상급식 ▲명문고·유명 대학 분교 유치 ▲전국 최고의 관광단지 '광산문화예술촌' 조성 ▲도농복합 전원도시 조성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윤 전 의장은 광주전자공고·송정중·동아여중 교사,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특보단장, 광주 서구·남구의회 의원 등을 지냈다.

장애인 문예창작 지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800여억원을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창작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시혜 차원이 아닌 창조의 주체자로서 문화예술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훈 북구의장 추대

○…광주 북구의회 신임 의장 후보에 김태훈 의원(민주·나 선거구)이 추대됐다.

북구의회는 28일 오전 재적의원 14명(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투표를 실시해 김 의원을 의장 단독 후보로 선정, 추대했다.

북구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170회 임시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한나라 국책 설명회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28일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재순 최고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남경필·정병국 의원이 초청연사로 나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을 설명했다. 광주시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자체 조직 점검과 보고회도 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시-교육청 '교육행정協' 구성

광주교육의 한 차원 높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과 행정기관이 손을 잡았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양 기관장을 의장으로 국장급 이상 간부 등 10명 이내 위원이 참여하며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세부적 사항 등을 실천한다.

주요 협의 안건은 학교교육여건 개선,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 교육 유해 환경시설 개선,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 등이다. 또 평생교육 및 과학, 기술교육 진흥과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를 다루고 실행에 옮길 협의체 등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실제로 시와 일선 구청에서 법정부담금 등으로 연간 2천억원의 교육지원금이 들어오고 있으나 운영과 집행, 처리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r